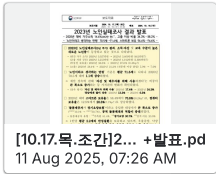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i 취약계층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예 '독거노인'에 대한 IOT 통합 지원 서비스 필요성 근거 마련

- 독거노인 급증 및 돌봄 공백 심화
- 1인 가구의 열악한 건강 및 생활 상태
- 위기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사람의 부재
-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보유율 상승
- 공적 돌봄 체계의 역할 증대 및 보완 필요성



취약계층 1인 가구 IOT 돌봄 필요성 근거

1. 독거노인 급증 및 돌봄 공백 심화

- 근거: '1인 가구(독거노인)의 비중은 32.8%로 2020년 대비 13.0%p 증가했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감소(2020년 20.1% → 2023년 10.3%)했다.'
- 해석: 가족과의 동거율이 급감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 돌봄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IOT 시스템은 이러한 돌봄 공백을 메우고, 가족이나 사회적 연결망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의 안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1인 가구의 열악한 건강 및 생활 상태

- 근거: '1인 가구는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건강상태, 우울증상,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 '건강하다' 응답 비율: 독거노인 34.2% ↔ 노인부부 48.6%
- 우울증상 보유 비율: 독거노인 16.1% ↔ 노인부부 7.8%
-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다' 비율: 독거노인 73.9%
- 해석: 독거노인은 다른 노인 가구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정서적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OT 시스템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 및 위기 감지는 이들의 건강 악화 및 긴급 상황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위기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사람의 부재

- **근거:**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등의 상황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6.6%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비율이 증가한다.
- **해석:** 위기 상황 발생 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IOT 시스템은 낙상 감지, 응급 호출 기능 등을 통해 사람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4.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보유율 상승

- **근거:** '2020년 대비 2023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56.4%에서 76.6%로, 컴퓨터 보유율은 12.9%에서 20.6%로 상승했다.'
- **해석:** 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IOT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앱, 알림 등)를 노인들이 더욱 쉽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IOT 시스템이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5. 공적 돌봄 체계의 역할 증대 및 보완 필요성

- **근거:** '돌봄제공자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2020년 19.1% → 2023년 30.7%)하여 공적 돌봄체계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 **해석:** 공적 돌봄 서비스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제공자가 부족하거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있습니다. IOT 시스템은 공적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적 돌봄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